

# “억척스런 해녀 역 밥보다 물 더 먹었죠”

26일 개봉... 영화 '밀수' 김혜수

### 염정아와 투톱...바닷가 도시 배경 해녀들 밀수 범죄 그려 배우들 팀워크에 짜릿...수중 촬영 공포에 공황 증세 오기도

“제 파트너인 염정아 씨와 물 밑에서 느낀 일체감과 우리 둘만 알 수 있는 그 찰나의 온전한 집중, 신뢰...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네요.”

19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혜수는 류승완 감독의 영화 '밀수' 수중 촬영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는 26일 개봉을 앞둔 이 영화는 1970년대 바닷가 도시 군현을 배경으로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그린 활극이다. 억척스럽고 의리 있는 전직 해녀 ‘춘자’ 역을 맡은 김혜수는 해녀들의 리더 ‘진숙’ 역의 염정아와 짝을 이뤄 극을 끌어간다.

김혜수는 “(촬영) 현장이 행복하다는 걸 언젠가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밀수’로 처음 그런 기분을 느꼈다”며 웃었다.

“정아 씨와 같이 물에 들어가면 사인을 주고 받고서 촬영을 시작하거든요. 둘이 마주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게 참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아 씨가 되고 정아 씨가 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춘자와 진숙보다도 더 (진숙)가 진숙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그가 물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수중·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동료들의 힘이 컸다고 한다.

김혜수는 물 밑 장면 촬영 직전 공황 증세를 보였다. 영화 '도둑들' (2012)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물에 빠지는 장면을 찍었을 때 떠오르면서다.

“숨이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처음엔 ‘이게 뭐지?’ 했어요. 물을 보기만 해도 땀이 마비되더라고요. 두 번째 촬영 때는

못 하겠다고 제작진한테 메시지까지 보냈죠. 하하. 그러다 우리 해녀팀이다 함께 기량을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다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걸 보면서 뭔가가 탁 풀리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두려움을 이겨낸 그는 물속에서 잠영은 물론이고 아크로바틱한 액션 장면까지 선보인다. “밥보다 물을 더 많이 먹었다”는 김혜수는 이마가 브이(V) 자로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배우들이 힘을 합쳐 배를 돌려야 하거나, 거센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는 등 물리적 어려움도 따랐다.

복합적인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또한 김혜수에게는 또 다른 관문이었다.

식모살이부터 시작해 안 해본 일이 없는 춘자는 드센 것 같으면서도 여리고, 모진 것 같으면서도 의리는 넘치는 인물이다. 외모 역시 극적으로 변한다. 물집에 이끌린 해녀의 모습 이던 그는 서울 물을 먹고부터는 화려한 도시 여자로 변신해 사기극을 펼친다.

“춘자는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고아 출신에 떠돌이도 하지요. 예쁘지 않고 밝아 보이지만 내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워요. 서울로 온 춘자의 외모가 변한 것도 그 사람의 톤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자신을 위장하는 걸로 생각했죠.”

김혜수가 춘자 역을 소화하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한때 친자매처럼 지냈던 진숙과의 관계성이다.

두 사람은 한 사건을 둘러싸고 오해가 생기면서 등지고 살다가, 다시 한번 밀수 판에 함께 뛰어들게 되면서 몇 년 만에 재회한다.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김혜수와 염정아가 논의의 끝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류 감독은 두 사람의 연락을 받고 나와 시나리오를 수정했다.

“춘자가 진짜 모습을 유일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진숙이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선 가장 솔직한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레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진숙이, 춘자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 하시더라고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서 시나리오를 고쳐줬죠.”

데뷔 37년 차인 김혜수는 대표작만 해도 열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영화 '타짜'의 정 마담, '도둑들'의 팽사·관상'의 연홍·'굿바이 싱글'의 주연, 드라마 '장희재' 속 희빈 장씨, '직장의 신' 미스 김, '시그널' 수현, '소년심판' 은석, '슈룹'의 어머니 등 다채롭고 개성 있는 캐릭터를 수없이 선보였다.

하지만 김혜수는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매년 연기에 한계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기를 쓰고 해도 기분을 하는 거니까, 모든 작품을 하면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해요. 그런데도 모니터링하다 보면 (연기가)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가짜 같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매번 느끼는데 제가 제 민낯을 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거든요. 그럴 때면 정말...눈물 나죠.”

그때도 그는 '밀수'를 촬영하면서는 그런 감정을 팀워크가 압도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이 즐겁고 행복했던 것도 모두 그 덕분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어느 순간부터 ‘나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자, 각자 장단이 있다’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나는 이런 배우인 거지...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극복 안 되는 단점도 있는 거잖아요. 저를 제대로 보고 방법을 찾아야지요.”

/연합뉴스

## 청룡시리즈어워즈 첫 대상은 송혜교

(OTT 콘텐츠)

### 학폭 다룬 '더 글로리' 열연...작품상에 드라마 '카지노'

배우 송혜교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로 청룡 시리즈어워즈 첫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혜교는 지난 19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제2회 청룡 시리즈어워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청룡 시리즈어워즈가 대상을 시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혜교는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한테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 처음으로 칭찬해주고 싶다”며 “수고했다 해교야”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드라마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디즈니+ '카지노'에, 예능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넷플릭스 '사이렌: 불의 섬'에 각각 돌아갔다.

드라마 남우주연상은 넷플릭스 '수리남'에서 외국 마약 거래 조직 소탕 작전에 투입된 사업가를 연기한 하정우가, 여우주연상은 쿠팡플레이 '안나'에서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살게 되는 이유미 겸 이안나를 연기한 수지(배우지)가 받았다.

남우조연상은 '카지노'의 배우 이동휘, 여우조연상은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를 연기한 임지연에게 돌아갔다. 신인 남자배우상은 웨이브 '악한영웅'의 박지훈, 신인 여자배우상은 디즈니+ '3인칭 복수'의 신예은의 몫이었다.

남자 예능인상은 티빙 '플레이유 레벨업: 빌런이 사는 세상'을 이끈 유재석이 받았다. 여자 예능



송혜교

인상은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3에서 화제가 된 배우 주현영이 수상했다.

신인 남자 예능인상은 웨이브 '피의 게임' 시즌2에 출연한 유튜버 텍스가, 신인 여자 예능인상은 'SNL 코리아'에서 '맑은 눈의 광인'으로 활약한 김아영에게 돌아갔다. 이밖에 '티르티르 인기스타상'은 배우 박재찬(DKZ)과 배우선수 김연경, 배우 차은우(아스트로), 이광수 4명에게 돌아갔다.

청룡 시리즈어워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다.

/연합뉴스

## BTS '비욘드 더 스토리' 美서 열풍

### 韓 도서 첫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도서 빌보드차트 격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낸 첫 공식 도서 '비욘드 더 스토리'(BEYOND THE STORY·사진)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공개된 순위에 따르면 이 책은 비소설 하드커버 부문과 비소설 컴바인드 프린트 및 전자책 부문 정상을 차지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발표된 순위는 지난 9일 이후 발간된 도서의 주간 판매량과 예약 판매량을 합산해 매긴 것”이라며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로 직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순위에서 한국인 저자의 도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는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계의 순위 목록이다. 팝송으로 치면 빌보드 차트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31년 10월 뉴욕타임스에 실리기 시작한 이 목록은 영어권 베스트셀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일종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비욘드 더 스토리'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온라인 서점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발간 당일 미국, 영국, 브라질, 호주, 일본 등지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특히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역대 최

## BEYOND THE STORY

비욘드 더 스토리



10-YEAR RECORD OF BTS

다 선주문량 신기록도 세웠다.

책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준비 과정, 데뷔, 월드스타로 등극하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가 직접 인터뷰에 참여해 직접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풀어냈다.

위버스 매거진을 쓰는 대중음악평론가 강명석이 멤버들을 인터뷰해 책을 썼으며, 총 23개 언어로 출간됐다. 국내 출간일인 지난 9일은 팬덤 아미가 탄생한 '아미 데이'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기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기2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참살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밀,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것은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평화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